

통합 KTF 대표이사에 남중수 KT 재무실장 선임



남중수(48) 전 KT 재무실장이 통합 KTF의 신임사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KTF는 지난달 15일 남중수 신임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를 개최, 이사회를 마친 후 이경준 현 사장의 이임식과 남중수 신임사장의 취임식을 잇따라 개최했다.

남 신임사장은 “현재 KTF는 빠른 시일 안에 두 회사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최우선적으로 조직과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 KTF-KT아이컴 조직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KT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변 경쟁환경과 유·무선통합서비스, 차세대무선통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세계적인 통신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신임사장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메사추세츠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KT 충북 본부장, 사업협력실장, IMT-2000 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KT 재무실장직을 담당해 왔다.

그는 특히 IMT-2000 사업본부장 시절 KT의 사업권 획득을 진두 지휘한 바 있으며, 재무실장으로서 공기업 최대규모의 해외DR 발행 및 KT 완전민영화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남 신임사장이 내정 발표 하루만에 서둘러 통합 KTF의 사장으로 취임한 것은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KT아이컴과의 통합을 위해 조직통합과 KTF·KT아이컴 인사 등의 준비를 서두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병균 하나로드림 상무,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포탈 하나포스닷컴(www.hanafos.com)을 운영하는 하나로드림의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안병균(44) 전 상무가 선임됐다.

지난 3월 하나넷과 드림엑스 통합 시기부터 하나로드림의 전략기술본부장 및 대표이사 상무직을 겸임해온 안병균 신임사장은 지난 1985년부터 국내 인터넷 및 네트워크 부문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통신관련 전문가다.

한양대 전자통신공학과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 및 통신공학 석사, 헬싱키 경영대



학 MBA 과정을 마친 안 신임사장은 데이콤 전산통신운영본부와 정보통신사업단 천리안 기술팀 팀장을 거쳐 하나로통신 마케팅실 초고속인터넷 상품개발팀 팀장, 인터넷사업팀 팀장, 인터넷데이터센터 센터장, EC사업실 실장, 하나로드림 전략기술본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하나로드림의 실질적인 내부 경영을 맡게 되면서 하나포스닷컴의 런칭을 주도했고 약 6개월여만에 포탈업계 순위에서 9계단이나 상승시키는 등 탁월한 경영 능력 및 노하우를 인정받아왔다.

이번 안 신임사장의 취임에 따라 하나로드림은 앞으로 회장에 하나로통신 신윤식 회장 겸임, 안병균 신임사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며 현 전략기술본부, 포탈사업본부, e비즈니스본부로 구성된 3개 본부 체제를 강화해 보다 치밀하고 다각적인 전략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안 신임사장은 “올해 주력 사업인 게임, 커뮤니티, 검색, 전자상거래, 교육 등을 집중 강화해 각 부문에서 최고의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하나로드림은 현재 인터넷 매트릭스 기준 5위, 코리아 클릭 기준 4위인 포탈업계 내 방문자수 순위를 올해 내에 3위권으로 끌어올리고, 680억원의 매출에 45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썬 대규모 인사발령 ... 부사장에 최흥근씨 선임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지난달 부사장, 전무 등 임직원에 대한 승진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부사장직이 새롭게 신설된 한국썬의 이번 승진 인사 발령은 인사 가이드라인에 의해 객관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서비스사업본부를 총괄하고 있는 최흥근(49) 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프로페셔널 사업부의 오세창 상무와 공공분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송기영 상무가 각각 전무 이사로 승진 발령됐다. 최흥근 신임부사장은 한국항공대를 졸업한 후 한국IBM

에서 16년간 근무했으며 지난 94년 한국썬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철수연구소, 연구소장에 홍승창 상무 영입

통합보안솔루션 기업인 안철수연구소는 데이터게이트인터내셔널 보안사업 총괄 겸 CTO를 역임한 바 있는 홍승창(45) 상무를 영입, 연구소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홍승창 소장은 안철수연구소의 기술기획실, 기반기술그룹, 전산팀 등을 관할해 주요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철수연구소는 안철수 사장이 CEO로서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비전을 중점적으로 관장하고 김철수 부사장은 COO로서 회사 전반의 운영 및 사업본부를 관할하며, 신임 홍승창 상무가 연구소장으로 주요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체제 구축을 완료, 글로벌 조직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한편, 신임 홍승창 소장은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81)하고 한국IBM을 거쳐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보보안 솔루션 업체인 데이터게이트인터내셔널에서 보안기술연구소장, 보안사업 총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머큐리, 신임사장에 이용복 전 에스피컴텍 사장 영입

코스닥등록기업인 에스피컴텍의 사장을 역임한 이용복씨(59)가 통신장비업체인 머큐리의 신임사장으로 영입됐다. 이용복 신임사장은 육사를 나와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IT 전문가로 삼성전자에서 전략기획 및 기술총괄, 통신시스템사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삼성GE의료기기 대표이사 사장을 거쳐 2000년부터는 이동통신 및 전송·네트워크장비 등을 생산하는 에스피컴텍의 사장을 역임했다. 이 신임사장은 “어려운 경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수익 경영에 힘써 머큐리를 알차고 내실 있는 회사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머큐리가 대우통신으로부터 독립한 지난 2000년 11월부터 회사를 이끌어온 김진찬 전임 사장은 회장으로 승진했다.



전자결제서비스업체 이니시스 신임 CEO 이금룡 사장



‘인터넷전도사’로 불리는 이금룡(52) 전 옥션 사장이 전자결제서비스 업체인 이니시스의 신임 CEO로 돌아왔다.

이 신임 사장은 옥션을 국내 최고 인터넷경매회사로 키워 미국의 이베이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바 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한 국내 인터넷 벤처업계의 1세대 인물이다.

이니시스는 전국 5000여개 기업의 결제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전자결제서비스 전문업체로 지난 98년 11월 설립된 후 ‘이니페이(INIPay)’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쇼핑몰, 인터넷빌링, 티켓에매시스템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번 이니시스 취임 일성에서 “전자상거래의 미래는 밝다”며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전과 확대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그는 B2B시장의 성장세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PDA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의 성장에도 큰 기대를 걸었다.

이번 이 신임 사장의 영입으로 업계에서는 이니시스가 전자상거래 결제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편, 권도균 전 이니시스 사장은 “이금룡 사장이 전자지불서비스부문에서도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고 본인도 새로운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보고 싶어 영입을 결정했다”며 “이니시스가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해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전 사장은 이니시스의 관계사인 모바일결제서비스 제공업체 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KMPS)의 대표이사직에 전념할 계획이다.

어바이어 코리아, 채널 총괄직에 김한태 상무 선임



엔터프라이즈 통신 및 네트워크 솔루션 공급업체인 어바이어코리아가 김한태(42) 전 시스폴 상무를 채널총괄 상무로 영입했다. 신임 김한태 상무는 시만텍코리아 지사장,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상무를 거쳐 최근까지 시스폴의 세일즈 & 마케팅 상무를 지내다 어바이어코리아 상무에 임명됐다. 김상무는 앞으로 어바이어코리아에서 채널영업을 총괄 담당할 예정이다. 어바이어코리아 측은 “조직개편을 통해 앞으로 채널을 통한 영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채널영업과 전략개발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지닌 김한태 상무를 영입하게 되었다”고 영입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김 상무는 “성공적인 채널 영업수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어바이어가 국내 시장에서 더욱 탄탄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KT 김한석 경영연구소장 국제민간기구 (PTC) 회장에 재선임



KT의 김한석 경영연구소장이 하와이에 본부를 둔 태평양전기통신협의회(PTC : Pacific Telecommunications Council) 차기 회장으로 재선임됐다.

PTC는 전기통신분야에서 최대 규모의 국제민간기구로 지난 1980년 1월에 설립된 단체이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40여개 국가의 600여 기업 및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1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연차총회에는 수천여명의 통신사업자와 학계, 정비제조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해 1월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선출돼 여러 중요한 현안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PTC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김소장은 "세계적으로 통신업계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아·태지역의 통신발전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PTC를 이끌어 간다는데 보람을 느끼며, 한국의 통신산업이 이 지역에서 특히 중국과의 통신협력의 중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네오캐스트 김동룡 신임부사장 영입

eCRM솔루션 전문업체인 네오캐스트가 김동룡 전 삼성SDS 공공사업 팀장을 신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김 신임 부사장은 경희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SDI(구 삼성전관), 삼성SDS 등을 거쳤다.



네오캐스트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공공 기관의 CRM 사업을 강화하고자 김 부사장을 영입했다"며 영업 경쟁력 강화에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김동룡 부사장은 네오캐스트에서 이메일마케팅 솔루션 @Master Promotion과 온라인 고객 서비스 자동화 솔루션 @Master Contact Center등의 국내외 영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EVA 신입회장에 박성열 우린정보 사장 선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 벤처기업 모임인 에바(EVA ; ETRI Venture business Association)의 신입회장으로 박성열 우린정보 사장이 선임됐다. EVA는 최근 정기 모임을 갖고 초대 회장이었던 오리온전기 유완영 사장의 후임으로 박성열 우린정보 사장을 선임했다.

EVA는 지난 96년 13개사로 결성돼 ETRI와 EVA 정기교류회, 공동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237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해 매월 모임을 갖고 있다. EVA의 회원사 가운데에는 아펙스와 핸디소프트, 서두인칩 등 8개사가 코스닥에 등록돼 있고 3~4개 업체가 등록을 준비중이다.

신임 박회장은 지난 1978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전산개발부장, 정보기술개발단장, 기획부장, 슈퍼컴센터장 등을 역임하다 지난 2000년 지식정보검색전문업체인 우린정보를 창업했다.

파워콤, 신임 대표이사에 박운서 데이콤 회장 선임



파워콤의 신임 대표이사에 박운서(63) 데이콤 회장이 선임됐다. 파워콤은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갖고 9명의 이사진 가운데 LG측이 추천한 이사 5명을 포함한 새로운 이사진을 승인하는 등 새로운 경영진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운서 데이콤 회장은 이번 파워콤 대표이사 선임으로 99년 1월 LG그룹에 합류한 지 4년 만에

LG통신서비스 부문 회장에 선임돼 사실상 LG그룹 내 통신서비스 부문의 최고 수장으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박 회장은 앞으로 데이콤과 파워콤의 동시 경영에 나선으로써 그룹 내 유선 및 무선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LG그룹은 박 회장을 파워콤 대표이사에 선임하는 한편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이민우 LG텔레콤 부사장을 선임, LG텔레콤-데이콤-파워콤 등 LG그룹 내 통신서비스 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데이콤은 특히 파워콤 인수 이후 파워콤망을 활용한 일반 소비자 대상의 초고속 인터넷사업 진출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130만명의 가입자 기반과 전국 영업망을 갖춘 두루넷의 추가 인수를 재추진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 3인의 상임이사로는 대표이사 회장에 박 회장, CFO로 이 부사장이 LG측 추천으로, 경영지원담당에 홍삼선 상무가 한전측 추천으로 선임됐다.

또 비상임 이사에는 이희국 LG전자 전자기술원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이강원 한전전력산업구조조정실장 등이 선임됐으며, 사외이사로는 박한규 연세대학교 교수, 이봉래 전 한전전무, 김창기 전 파워콤 기술자문역 등이 확정됐다.

팜팜테크 신입사장에 최홍렬씨

PDA용 모바일 소프트웨어 회사인 팜팜테크가 신입사장(CEO)으로 최홍렬씨를 영입했다.

신임 최홍렬 사장은 삼성전자에서 발전 시뮬레이터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개발자 출신으로 이후 리눅스 서버 및 멀티미디어 개발 전문 벤처 기업에서 영업담당 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회사 하태성 이사는 “이번 영입은 취약한 영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지금까지 축적된 PDA를 비롯한 모바일 단말기용 SW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팜팜테크는 올해 포스트PC 단말기용 소프트웨어와 차량 진단용 PDA 소프트웨어 등으로 1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포넷, 신입사장에 박경운 전 두산그룹 CIO 영입

보안서비스 전문업체 카포넷이 박경운(50) 전 두산그룹 CIO를 신입사장으로 영입하고, 보안관제를 중심으로 통합 PC보안서비스와 통합보안관리(ESM) 및 해외 보안사업 확대에 나섰다. 박경운 신입사장은 성균관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1988년 한국디지털에 입사했으며, 1995년 모토로라코리아의 마케팅 매니저를 거쳐 두산정보통신과 두산그룹의 CIO로 재직해 왔다.

박 신입사장은 “그동안의 ESM 및 공공·통신 SI분야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특화된 분야에 집중하는 동시에, 보안관제센터의 대 고객서비스 수행경험을 기반으로 대외 아웃소싱을 확대해 보안관제서비스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다져가면서 전격적인 마케팅영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카포넷은 지난해 약 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서비스부문과 보안 SI 등을 포함해 총 18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노크래프트 대표이사에 김종철 전임사장 복귀

광역기반 가상사설망(VPN) 전문업체인 이노크래프트가 지난달 창업자이자 전임 대표이사인 김종철 사장을 신임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종철 사장은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에서 물러났으며, 최근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대표이사에 복귀했다. 이노크래프트는 이번 김 사장의 복귀로 VPN시장에 대한 영업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코스닥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회사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자리매김하는 순간에 복귀를 해 기쁘다”며 “치열한 시장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신속한 결정체제와 조직 슬림화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를 위해 조만간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 등 구조조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을 꾸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항진 전 사장은 개인적인 해외마케팅을 위해 퇴임했다.

서울디지털대학 석좌교수 송복, 김용준 교수 등 영입

사이버대학인 서울디지털대학(SDU)이 최근 석좌교수제를 도입, 송복 전 연세대 교수와 한상복 전 서울대 교수, 신일철 고려대 명예교수, 김용준 고려대 명예교수 등을 영입했다. 서울디지털대학은 이번 석좌교수제의 도입으로 사이버대학의 위상 강화와 함께 정보화시대에 부족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인문학 분야의 석학 영입을 계기로 명망 있는 학자들의 사이버대학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영입된 석좌교수진은 향후 ‘정보사회와 인간’, ‘인간과 문화’, ‘교양인을 위한 철학’, ‘인간과 자연’ 등의 교양 과목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 인사 |

서울시

〈4급 행정직〉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획담당관 **강종필**, 산업국 산업지원과장 **정순구**

한국로지텍 교육인적자원부

〈4급 기술직〉
지리정보담당관 **김근성**, 정보통신담당관 **김대성**

한국로지텍

이사대우 **장봉춘**

교육인적자원부

〈서기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이종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기술단 암호기술팀장 **임선간**, 평가인증사업단 평가2팀장 **이완석**,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사무국 스태프대응팀장 **주덕규**, 기술단 기술표준팀장 **김승주**, 기술단 시스템기술팀장 **이경구**, 평가인증사업단 평가기준팀장 **노병규**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시험연구소 전자의료기기연구그룹장 **허영**, 전기시험연구소 전기정보망 기술연구그룹장 **김관호**

한국증권전산

정보단말사업팀장 **박철희**, 장외시스템 사업팀장 **윤경**

KT인포텍

초고속사업본부 망관리시스템팀장 **이윤재**, 인터넷사업본부 전자상거래사업 2팀장 **남희석**, 인터넷사업본부 인터넷 기반구축팀장 **유기성**

시그엔

영업기획관리 이사 **정현문**, 연구소 이사 **이동화**, 정보보안컨설팅 이사 **이상준**

KT링크스

시설운영본부장 상무부 **이은재**, 기획조정실 IT운영팀장 **김식**

한국로지텍

이사대우 **장봉춘**